INDEX NEWS

2026. 5. 26

ETP전략팀

전균 Senior Analyst
gyun.ju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KOSPI200 / KOSDAQ150 정기변경 발표

KOSPI200 4종목, KOSDAQ150 16종목

- KOSPI200, 4종목 편출입
- KOSDAQ150, 16종목 정기변경
- 예상보다 늘어난 정기변경 대상종목으로 Passive 펀드의 리밸런싱 비용 유의해야

2026년 상반기 정기변경 대상종목 발표

KOSPI200 4종목 편출입: 6월 12일에 예정된 KOSPI200 구성종목의 정기변경 대상종목으로 4종목이 선정되었음. 편입 대상종목은 'DB하이텍(A000990)', 'HD건설기계(A267270)', '달바글로벌(A483650)', 'OCI(A456040)'이며, 제외 대상종목은 'GS건설(A006360)'과 '세방전지(A004490), 'GKL(A114090)'과 '녹십자홀딩스(A005250)'임.

KOSDAQ150 16종목 편출입: 6월 정기변경에서 IT 섹터의 '성호전자"와 '브이엠' 등 6종목, 산업재 섹터의 '현대무벡스'와 '비츠로셀' 등 4종목, 소재 섹터의 '삼표시멘트'와 '에이치브이엠', 자유소비재 섹터의 '삼현'과 '한라캐스트', 헬스케어의 '오름테라퓨틱'과 금융 섹터의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신규편입 대상종목으로 선정됨.
제외 종목으로는 IT 섹터의 '서울반도체'와 '셀바스AI' 등 6종목, 헬스케어 섹터의 '동국제약'과 '메디톡스' 등 4종목, 산업재 섹터의 '성일하이텍'과 '현대힘스' 등 3종목, 자유소비재 섹터의 '에코앤드림'과 '골프존', 필수소비재 섹터의 '콜마비앤에이치'이 선정됨.

유동주식 변경까지 고려하면 리밸런싱 비용 늘어날 수 있어: 6월 12일에는 정기변경 외에도 기존 구성종목의 유동주식비율 조정도 동시에 진행됨. KOSPI200의 기존 구성종목 둥에서 자사주와 대주주 지분 변동 등으로 기존보다 5%pt ~ 10%pt의 유동주식비율 증감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일부 발생할 것임. KOSPI200의 경우 유동주식 조정보다는 정기변경에 따른 리밸런싱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됨.
KOSDAQ150의 기존 구성종목의 유동주식비율 조정도 고려해야 함. 일부 중대형주의 유동주식비율 조정이 정기변경에 버금가는 규모로 발생할 수 있음. 편출입 종목의 리밸런싱 비용이 편입종목 7%pt이상, 제외종목 2%pt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KOSDAQ150을 추적하는 패시브 펀드(ETF 포함)의 리밸런싱 비용과 정기변경에 따른 수급변동을 유의해야 할 것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KOSPI200 정기변경 대상종목 발표

4종목 편출입: 신규편입 대상종목으로 IT 섹터의 DB하이텍과 산업재 섹터의 HD건설기계, 자유소비재의 달바글로벌, 소재 섹터의 OCI가 선정되었음. DB하이텍의 경우 IT 섹터의 편입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대형주 특례편입을 적용받은 것으로 추정됨. OCI의 경우 소재 섹터의 편입기준 경계선상에 있었으며, KRX가 적극적으로 편입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됨.

제외 대상종목으로 산업재의 GS건설과 자유소비재의 세방전지와 GKL, 헬스케어의 녹십자홀딩스가 선정되었음. 해당 종목들은 모두 제외가능 리스크에 등재되어 있던 종목으로, 편입종목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제외대상 종목도 같이 증가하였음.

2026년 6월 KOSPI200 정기변경 대상종목

편입	제외
DB하이텍 (IT)	GS건설 (산업재)
HD건설기계 (산업재)	세방전지 (자유소비재)
달바글로벌 (자유소비재)	GKL (자유소비자)
OCI (소재)	녹십자홀딩스 (헬스케어)

자료: KRX

KOSDAQ150 정기변경 대상종목 발표

16종목 편출입: 신규편입 대상종목으로 IT 섹터의 브이엠과 성호전자 등 6종목과 산업재 섹터의 현대무벡스와 비츠로셀 등 4종목, 소재 섹터의 삼표시멘트와 에이치브이엠, 자유소비재 섹터의 삼현과 한라캐스트, 헬스케어의 오름테라퓨틱과 금융 섹터의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종 16종목이 선정되었음.

제외 대상종목으로 IT 섹터의 서울반도체와 셀바스AI 등 6종목과 헬스케어의 동국제약과 미코 등 4종목, 산업재 섹터의 성일하이텍과 현대힘스 등 3종목, 자유소비재 섹터의 에코앤드림과 골프존, 필수소비재 섹터의 콜마비앤에이치 등 16종목이 선별됨.

당사가 편입예상하였던 파두는 이번에도 편입불발 되었으며, 산업재 섹터의 비츠로셀, IT 섹터의 기가비스와 로보스타 등은 편입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던 종목으로 KRX가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2026년 6월 KOSDAQ150 정기변경 대상종목

편입		제외	
원익홀딩스 (IT)	현대무벡스 (산업재)	미코 (IT)	동국제약 (헬스케어)
성호전자 (IT)	세트렉아이 (산업재)	제우스 (IT)	메디톡스 (헬스케어)
아이티센글로벌 (IT)	휴림로봇 (산업재)	서울반도체 (IT)	원텍 (헬스케어)
브이엠 (IT)	비츠로셀 (산업재)	엠로 (IT)	바이넥스 (헬스케어)
로보스타 (IT)	삼현 (자유소비재)	셀바스AI (IT)	성일하이텍 (산업재)
기가비스 (IT)	한라캐스트 (자유소비재)	솔트룩스 (IT)	현대힘스 (산업재)
삼표시멘트 (소재)	오름테라퓨틱 (헬스케어)	에코앤드림 (자유소비재)	에코프로에이치엔 (산업재)
에이치브이엠 (소재)	미래에셋벤처투자 (금융)	골프존 (자유소비재)	콜마비앤에이치 (필수소비재)

자료: KRX

유동주식비율 조정도 고려해야

정기변경과 함께 기존 구성종목의 유동주식비율 조정도 진행: KRX는 자사주 변동이나 대주주 지분 증감, 유무상 증자 등으로 인해 구성종목의 유동주식비율이 기존에 비해 ±5%pt 이상 변동할 경우 유동주식비율의 조정을 시행함.

KOSPI200 구성종목에서는 기존에 비해 유동주식비율이 ±5%pt ~ ±10%pt 변동하는 경우가 일부 예상되며, 이들 종목의 유동주식비율 조정에 따른 시총 변동은 0.01%p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KOSDAQ150 구성종목에서는 기존에 비해 유동주식비율이 ±5%에서 최대 ±20%pt 이상 변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대형주에서의 유동주식비율 조정은 편출입 종목의 시총 비중에 버금갈 정도로 크기 때문에, KOSDAQ150 기존 구성종목의 유동주식비율 조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유동주식비율 조정의 경과는 6월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KOSDAQ150 정기변경에 따른 리밸런싱 비용 유의해야: KOSDAQ150 구성종목의 2026년 6월 정기변경의 경우 대형주의 편입이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KOSDAQ150을 추적하는 ETF 포함 Passive 펀드의 리밸런싱 비용이 확대될 수 있음. 신규편입 종목 중 일부 대형주의 경우 시총상위 30위~50위권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임. 현재 추정한 편출입 비중은 신규 7%pt 이상, 제외 2%pt 이상임. 유동주식비율 조정까지 고려하면 리밸런싱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음.

KOSPI200 구성종목의 정기변경 대상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편입종목은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제외종목(세방전지와 GKL 등)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편임. KOSDAQ150 구성종목의 정기변경 대상 종목에서는 편입종목 중 삼현과 오름테라퓨틱, 기가비스와 아이틴센글로벌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적은 편이며, 제외종목의 경우 상당수가 20일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에 불과한 경우가 있어 편출입 과정에서 가격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